

금호타이어 ‘운명의 일주일’ 시작됐다

경영정상화 이행·해외 매각 동의서 제출기한 D-5

노조 “국내기업 인수 의사”...채권단 “사실무근” 혼선

금호타이어에게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채권단이 오는 30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과 해외매각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을 중단키로 ‘선언’한 만큼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이번 주 중대 국면을 맞는다.

특히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호타이어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이 ‘국내기업 인수’설을 부인하고 나서는 등 지역 경제에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끝내 파국으로 가나=25일 금호타이어

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광주를 찾은 중국 타이어업체 인 더블스타 차이웅선(榮永森) 회장과 만남을 거부했다.

애초 차이웅선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데 필수적인 노조 동의를 얻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끝내 노조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차이웅선 회장은 금호타이어 일반직 대표단과의 만남만 가진 뒤 서울로 돌아갔다.

노조측이 앞서 더블스타측에 ▲국내법인 10년간 경영계획 ▲고용 보장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 자료 등을 요청한 뒤 이뤄진

‘광주 방문’이라는 점에 기대감을 표출했던 지역 경제계에서도 허탈한 반응이 흘러나왔다.

지역 경제계에는 약정서 체결까지 잠정 합의안 도출→광주·곡성공장 조합원 대상 합의안 설명회→4조 3교대 근무 형태를 감안한 총투표→조인사→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 국내 기업 있다?”=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1차 범시민대회’에서 “인수 의사를 밝힌 건설한 국내 기업이 있다”고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승중 금호타이어 노조 곡성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국내 건설한 기업이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매각조건과 동일하게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지역 유력 정치인이 확인해준 내용이다”고 밝혔다. “해외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기존 산업은행측 입장을 뒤집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산은이 “국내 어떤 기업과도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접촉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하면서 사실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노조는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금속노조는 26일 광주전남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사태와 관련한 연대 투쟁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 ‘제네시스’ 美서 첫 전기차 공개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에서 첫 전기차를 공개한다.

현대차는 이번 콘셉트카(양산 전 개발 단계 차량)에 이어 2021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가 넘는 상용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져 친환경차 시장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오는 29일(한국시간) 뉴욕모터쇼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 콘셉트카는 그란 투리스모(GT) 형태로, 제네시스 전기차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어로 ‘그란 투리스모’, 영어로 ‘그랜드 투어러’로 불리는 GT는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주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개발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콘셉트카 디자인은 향후 제네시스 상용 전기차 디자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네시스는 2021년 출시를 목표로 주행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고성능 스포츠 쿠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제네시스 첫 상용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으로, 내연기관 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갖춰지면, 차체에 따라 배터리 용량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다양한 크기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제네시스는 2025년까지 적어도 4가지 종류 이상의 친환경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 제네시스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포함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세청, 향토기업 세정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향·왼쪽부터 네번째)은** 지난 22일 광양군 다압면 ‘매실명가 홍쌍리 매실’을 찾아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와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광주 지방국세청은 지난 2003년 부터 전통·향토업소 세정지원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보해양조 임지선 단독 대표이사 체제 전환

주주총회... 申 알리바바 임점·부라더 소다 열풍 등 성과

보해양조가 임지선(사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임 대표는 임광행 보해양조 창업주의 손녀로 오너가 3세대.

보해는 지난 23일 목포 본사에서 제 66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대표는 미국 미시건 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지난 2013년부터 보해양조 영업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영에 참여했다. 부사장 승진 이후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영업을 주도하며 중국 알리바바 임점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국내

최초 탄산주인 ‘부라더 소다’를 출시해 탄산주 열풍을 이끌며 지역주류업체의 전국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는 젊은 여성 CEO로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주류회사에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소통으로 직원들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임직원 및 소비자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비자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 경영활동에 즉각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봉을 자진 삭감하며 책임지는

CEO로서 면모를 발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유시민 작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임지선 대표는 “보해양조가 지난 68년 역사를 돌아보며 100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롭게 뛰겠다”며 “정도 천년을 맞는 전라도에서 지역민과 함께 전라도의 자부심을 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세화아이엠씨 상장폐지 되나

‘감사의견 거절’ 공시...소액주주연대 진상조사 촉구

지역 향토기업인 세화아이엠씨가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지역 경제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21일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인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중 가장 낮은 단계로, 회계법인인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점을 감안, 같은 날 투자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피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세화아이엠씨는 특히 지난 6일 ‘감사 의견 부적정설’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 정지’ 이후에도 감사보고서 제출일(21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고의 상장폐지’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부적정설이 흘러나온 지난 6일 이후 감사 자료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 21일 감사의견서가 나올때까지 별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게 이들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온라인 상으로 모임을 만들고 26일 광주시 광산구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한편,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주주 위임 등을 논의 중이다. 세화아이엠씨 소액주주연대는 또 ‘기업 행태를 고발한다’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화아이엠씨 측은 이와관련 “현 경영진은 이전 경영진의 문제로 발생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1981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몰드), 타이어제조 설비 전문업체로, 미주·유럽, 중국 등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

새 규제책 DSR 도입...총부채·소득 따져 대출액 산정

한중 간간해진 대출규제인 총채적상환 능력비율(DSR)이 26일부터 도입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뜻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빌려 썼다면 DSR은 14%다.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원(5000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을 50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의 원리금까지 합쳐 연 상환액이 총 5000만원에 이르면 DSR 100%로, 은행권이 예외주사하는 고 DSR 대상이 된다. 연간 상환액이 7500만원이라면 DSR 150%로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DSR을 적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2 17 23 34 42 45	3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26,427,225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4,357,954	56
3 5개 숫자 일치	1,357,737	2,242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7,519
5 3개 숫자 일치	5,000	1,725,236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726-0482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oticon PEOPLE FIRST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